

문제 많은 고린도현장을 새것으로 변화시킨 70인 제자 바울 -복음으로 여는 고린도후서- 이사야 43:19-21, 고린도후서 5:17

정윤돈 목사님

* 사43:19-2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송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 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전지전능하셔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저희를 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가지, 12가지 문제 안에 있는 오만가지 문제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모두 회복하고 이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고난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 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 뿐만 아니라 내가 도전하고 실천할 작은 미션, 그리고 절대미션까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것이 되었다’ 새것이 된 것이 무엇인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런데 새것이 되면 문제 앞에서 달라져야 한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계속 문제 속으로 집어넣으셨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복음 안에서 새것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내게 안 오는 것이 아니다. 더 큰 문제 속으로 자원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파괴와 건설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었을 때는 아름다운 도로와 터널이 나온다. 부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아무 계획 없이 파괴되는 것과 같이 내 인생을 만든다.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계획을 할 때 기도하면서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한다. 꿈은 그냥 꾸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 꾸어진다. 요셉의 꿈은 그냥 꾸어진 것이 아니다. 다니엘의 환상, 에스겔의 환상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꿈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꿈을 증거로써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라.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데에 더 큰 관심이 있어야 한다. ‘내 인생, 내 문제’하면서 생각하면 계속 문제가 온다. 그런데 독립운동, 나라와 국가, 회사를 살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분야를 살릴까’ 이 생각을 하지 ‘나 혼자 어떻게 먹고 살까,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도전했을 때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목표를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에,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놓고 시작하게 되면 다 보이게 된다. 여러분이 안 해도 된다. 기도만 해줘도 된다. 이것을 위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는 것이다. 이 그림을 계속 그려야 한다.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는 그림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를 살려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 복음적인 대통령, 모든 분야에서 리더들이 나와야 한다. 3천제자 되고 1만제자 되면 팀을 짜서 한 분야에서 되어질 때까지 도와주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해야 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 경제, 공부도 그렇고 전도를 위해 노력하고 피, 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나중에 누리지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것을 위해 피, 땀, 눈물을 흘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된다.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인생이 뒤에서 붙잡는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먼저 영적으로 준비하고 전문성을 준비하고 들어가라.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었는지 기도로 물어보며 준비해 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편한 곳으로 가지 않고 계속 세계복음화를 위해 도전했다. 복음을 위해 일부러 어려움으로 뛰어 들었다. 고난 속으로 뛰어 들었다. 고린도교회는 사도 바울의 보낸 비대면의 언택 메시지를 받고 결국은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교회를 변화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은 문제와 어려움이 기회이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했다. 요셉도 노예생활을 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어요’라고 고백했다. 요셉은 총리가 됨을 계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당연히 따라온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는 부르신 이유도 이와 같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항상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냥 떨어질 수 없다. 나에게 발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 문제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이 되어 있으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도 전하는 것이다. 이사야 43 장 21 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은 성공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물을 광야에 강을 내어 마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광야, 어려움 속에 보내주셨지만 그 문제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은 고린도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고자 한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네 번째 편지이다. 고린도교회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현장에 세워진 교회였다. 그래서 고린도교회는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부흥하였지만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여러 번의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교회에 말씀을 전달하였다. 이때 고린도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불순종하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새롭게 변화되었다. 여러분도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기준, 수준, 표준을 말씀으로 붙잡아야 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한다. 문제를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머뭇거리고 노력해서 이길 수 없다.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 버리라.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고린도교회는 오랫동안 세계복음화를 위한 플랫폼, 파수방대, 영적인 안테나로 쓰임 받게 되었다.

1. 첫 번째로는 먼저 새롭게 변화된 사도 바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후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증거를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 장 8 절에서 9 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거둬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너희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냐.’ 이야기하는 것이다.

2)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구체적인 내용 들을 말씀하고 있다. 오직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후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생명을 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고린도후서 11 장 22 절에서 27 절 말씀을 보겠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

라엘이나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육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 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만 당해도 여러분은 안 하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매를 사십에서 하나 감한 때를 맞았다고 한다. 39 때를 맞은 이유는 40 때를 맞으면 대부분 죽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한 대만 맞아도 캠프 안 나갈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들을 가지고 어려웠을까? 너무 기쁘게 맞고 굶었을 것이다.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니까. 여러분이 문제 있으면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그 어려웠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18가지가 나온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언약의 여정이다. 여러분은 세계를 복음화하고 정치와 경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피, 땀, 눈물을 흘려야 한다. 여러분이 돈 벌고 있는데 태장을 때리는 경우가 있겠는가. 이 정도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 돈 버는 것도, 선교도 도전해야 한다는 말이다.

3)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환상과 계시의 말씀까지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제 삼자의 이야기를 하는 어법을 사용한 것이다. 천국까지 가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좋은 것을 들은 것이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죽더라도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하면서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다.

4)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만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제자로 변화되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도 바울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무서운 일이 교만해지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것을 해도 교만의 냄새가 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사탄의 것이 된다. 12장 8절에서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에게 안질, 간질이 있다는 말이 있었다.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세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있어야지 낫다고 하셨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응답 안 해주시면 굉장히 짜증났을 텐데, 오히려 약함을 자랑했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한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교만해져서 잘 돌아가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문제가 계속 있고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는 돈이 생기고 안 생기고, 문제가 적고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 주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에 있다. 우리는 편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 아프고 병든 부분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다.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은 완전한 믿음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다.

2.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킨 복음적인 말씀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다.

1) 첫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였다. 고린도교회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나"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이 가정, 현장,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한다.

2)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고린도교회가 변화되었다. 여러분도 이래야 한다. 불신자들은 여러분의 삶과 모습을 읽는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사도 바울처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향기를 풍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겠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이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3)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고린도전후서 전체의 요절 말씀이고 고린도교회를 향한 '절대목표'라고 할 수 있다.

4) 네 번째로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는지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로 거듭나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새가족일 때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영접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영접을 제대로 하면 성령인도 받으며 알아서 성장한다. 중고등부 램프트들에게는 십자가를 설명해 주고 영접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영접하면 인생을 알아서 인도받는다.

결론으로 오늘도 고린도후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하고자 한다.

1. Covenant(커버넌트), 언약과 복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절대목표와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을 고린도와 같은 세상문화, 사탄의 문화에서 복음의 문화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는다. 우리는 절대목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도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3. Dream(드림),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우리들의 문제와 잘못을 붙잡고 24시간 기도한다면 시간을 초월한 25시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제일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잘못과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갱신을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인생의 편집, 설계, 디자인을 계속 생각해야 한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준비하는 사람이 응답받게 되어있다.

4. Image, 이미지이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라는 확실한 이미지를 가지고 현장에 도전한다면 가정과 교회와 현장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의 역사이다.

5. Practice(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문제 많은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기 위해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도전해서 살려야 하겠다. 이것을 성취하는 과정이 300, 30, 3 지교회이다. 이 현장을 70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한 영접을 시작하기 위해서 복음소식, 십자가영접메시지를 연습해 보고, 51구절 암송을 하는 것이다.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끝으로 사도 바울처럼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모든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복음으로 새롭게 셋팅하는 일천 만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언약으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